www.kawf.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2019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9

ART IS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2019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9

Who We Are
4 인사말
6 미션 및 비전
8 연혁
10 조직도
12 이사회
14 예산 현황
16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Business Highlights
20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사업
26 2019 돌아보는 예술인 복지사업

What We Do
32 창작역량강화
34 직업역량강화
36 불공정관행 개선
40 사회안전망 구축
42 예술활동증명
4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Interview
48 김우태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위원
50 김상덕 사진작가
52 리커버리 예술단
54 박정민 연극배우

News
56 통계자료
62 2019 주요 활동 뉴스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권리, 권익 지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정 희 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 희 섭**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희섭입니다.
2019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예술인복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일 년이었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 대상을 1천명 증원했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의 질적 성장을 꾀했습니다. 또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 사업 시행, '예술인복지위원회'와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과 법률지원도 꾸준히 확대하고 문화예술계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통계조사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대중음악이나 영화 관람이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클래식, 연극, 전통예술,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의 관람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창작의 주체인 예술인의 상당수가 아직도 자유계약자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고, 불규칙한 소득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 여가를 즐기며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향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긍정적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권리, 권익 지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스스로도 본인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부조리한 환경을 바꿔나가는 데에 동참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예술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규모가 커졌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로 시작하고, 올 한해도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 대한 끊임없는 응원의 자세로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미션 및 비전

Mission & Vision

Mission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예술인 복지법 제1조」

Vision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

슬로건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전략목표

- 예술인의 권익 제고
- 예술인의 생활안전망 지원
- 예술인의 가치 확산
- 재단 경영의 내실화

전략과제

-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 직업적 권리보호
-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마련
-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예술인의 다양한 활동 기회 마련
- 조직역량 강화
- 고객만족 실현

설립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연혁

History

2019

02 20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04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06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시행
08 예술인복지위원회 및 소위원회
(공정예술생태, 사회보험확대,
정책현장소통, 예술인 생활안정) 발족
11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발족
12 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권경영 선언

2018

0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희섭 취임
06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윤영달 취임
10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2017

03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서울시 마포 소재)
09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
국제세미나 개최
12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6

02 문화·예술인패스 사업 이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이문열 취임
09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총 15개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
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12. 30 시행)

2015

01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04 2015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2014

02 문화예술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오픈
03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04 반디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서울시 대학로 소재)
05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06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 취임
12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2013

07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문화예술위원회)
09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오픈
10 예술인복지 정책토론회(총 4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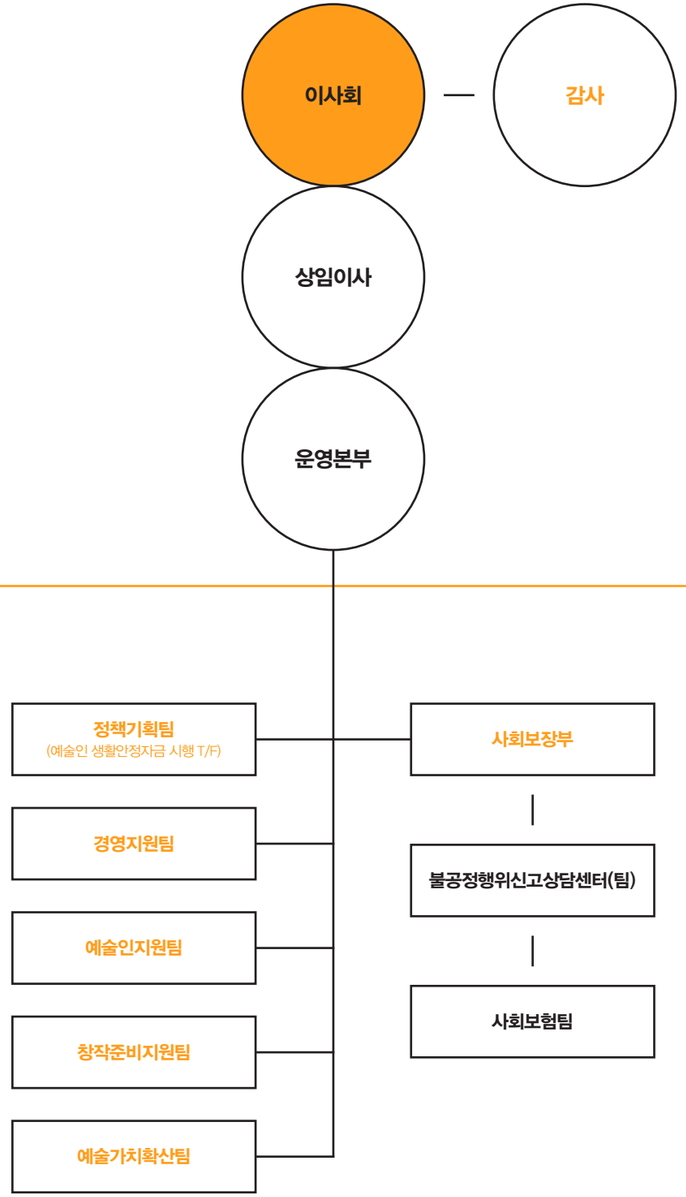
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주영 취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심재찬 취임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2011

11 「예술인 복지법」 제정

조직도

Organization



팀명	업무분장	
정책기획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행 T/F)**	경영기획 및 평가분석 홍보 국회 및 대외업무 조사 및 연구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운영 기타 정책사업	
경영지원팀	주요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기획·관리 인사·노무·교육훈련·근태 이사회 운영지원 자체 감사 회계·총무·시설관리, 계약 웹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	
예술인지원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 운영 재단 사업안내 및 응대	
사회보장부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불공정행위 상담신고 접수 및 소송지원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사회보험팀** 예술인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도입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창작준비지원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예술가치확산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 운영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구성

직위	성명	주요경력
이사장	윤영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이사	정인석	(주)아이엠컬쳐 대표
	김인희	前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이은봉	대전문학관 관장
	김영철	前 G1 대표이사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
	홍경한	미술평론가
	황준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감사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이사회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주요 의결 안건
제21차	2019. 1. 24	정관 개정 승인 의결 직제규정, 취업규정, 보수규정 개정 승인 의결
제22차	2019. 4. 25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보고 소위원회,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안 보고
제23차	2019. 7. 19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결산 승인 의결 회계규정 개정 승인 의결 상임이사 보수 결정 승인 의결 이사회 의제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승인 의결 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승인 의결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설치·운영 승인 의결
제24차	2019. 8. 26	여비규정, 위임전결규정, 보수규정 개정 승인 의결 이사회 의제별 소위원회·예술인복지위원회 구성 보고
제25차	2019. 9. 24	취업규정 개정 승인 의결 (서면)
제26차	2019. 12. 4	취업규정 및 회계규정 개정 승인 의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의결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재단 직제 개편 방안 보고 예술인복지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보고

예산 현황

Status of Budget

2019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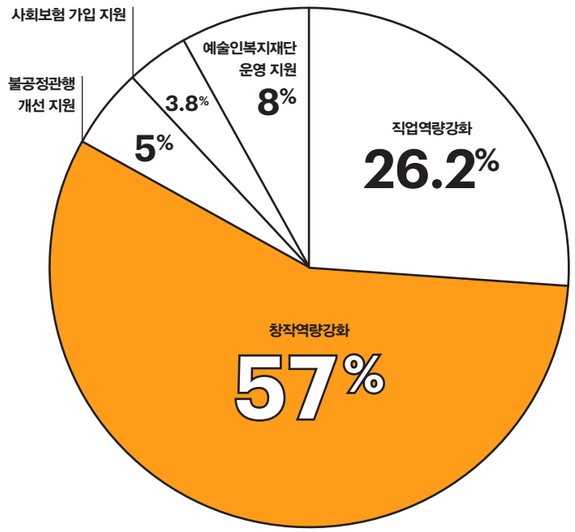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8	2019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예산액
직업역량강화	8,191,000	8,191,000	13,021	8,204,021
창작역량강화	13,954,000	17,804,000	-	17,804,000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975,000	1,547,000	-	1,547,000
사회보험 가입 지원	1,000,000	1,200,000	6,390	1,206,390
예술인복지금고 구축	1,000,000	-	-	-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2,343,000	2,467,000	-	2,467,000
합계	**27,463,000**	**31,209,000**	**19,411**	**31,228,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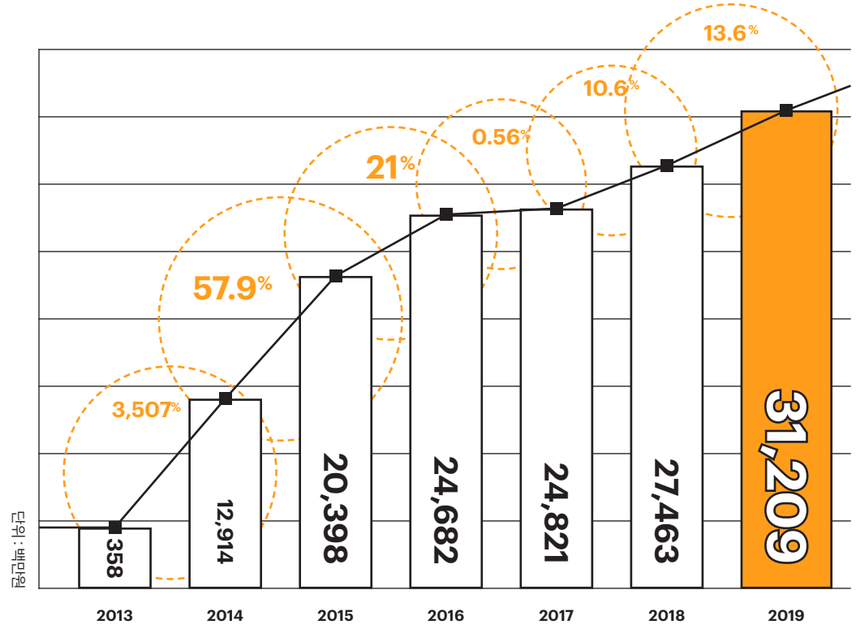
2019년 사업별 예산 편성

2019년 예산은 창착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사업비를 중점으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에 집중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직업역량강화 **26.2%**
창작역량강화 **57%**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5%**
사회보험 가입 지원 **3.8%**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8%**



2013–2019 국고 보조금 현황



2020년도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

Welfare System

2020년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규모 확대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금융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2019년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되었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며, 주요 상품인 전세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신청서류 간소화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규모가 5,500명에서 12,000명으로 지원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또한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예술인 학부모, 어린이집 신청은 예술활동증명으로

그 동안 어린이집 영유아(0~5세) 종일반('20년 기준 3월 기준 연장반) 신청 및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 확인 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기획사업 확대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사전기획을 통해 보다 알찬 협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을 2배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40개 팀 200명에서 올해는 총 80개 팀 400명으로 사업의 규모가 늘어나며, 지역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문화재단과의 협업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심리상담지원 확대

예술인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재단과 연계된 전국 32곳의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450여 명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그동안 예술활동증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재신청 기간이 촉박하다는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재신청 가능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예술인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심의 절차가 도입되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법률 컨설턴트 확대

예술인들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인식이 높아져 재단을 통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예술인 법률 컨설턴트를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더 꼼꼼한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 진행으로 강화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문화예술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 교육을 수료한 프리랜서 예술인은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을 기존 50회에서 70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바로 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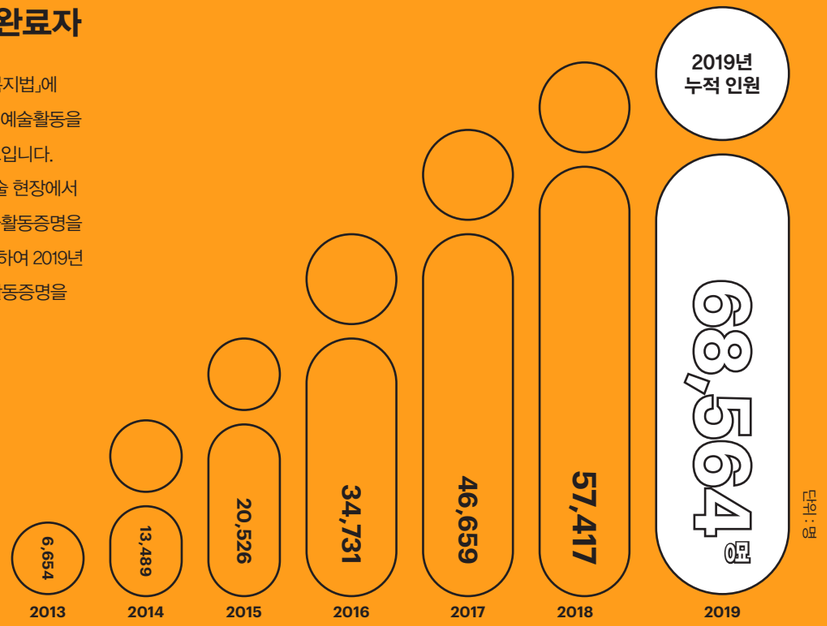
ART IS +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
전담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예술인 복지의 실현은 단지
예술인의 행복만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술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예술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친구처럼
늘 곁에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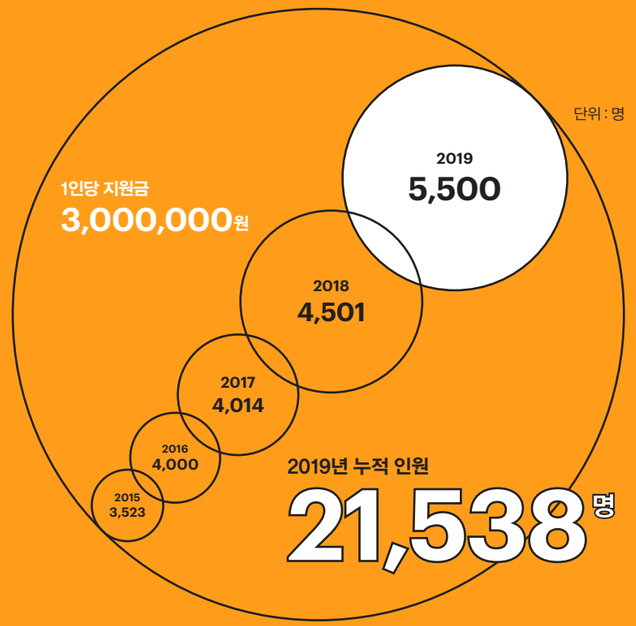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현장에서 아직도 생소한 절차인 예술활동증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여 2019년 말 기준 68,564명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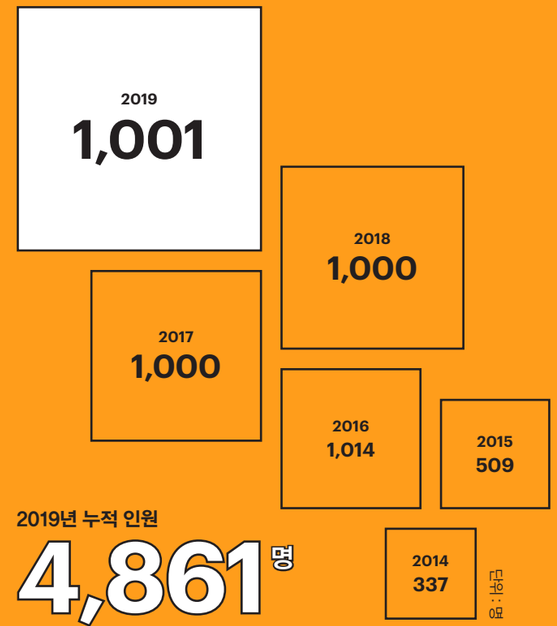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고,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에게도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538명의 예술인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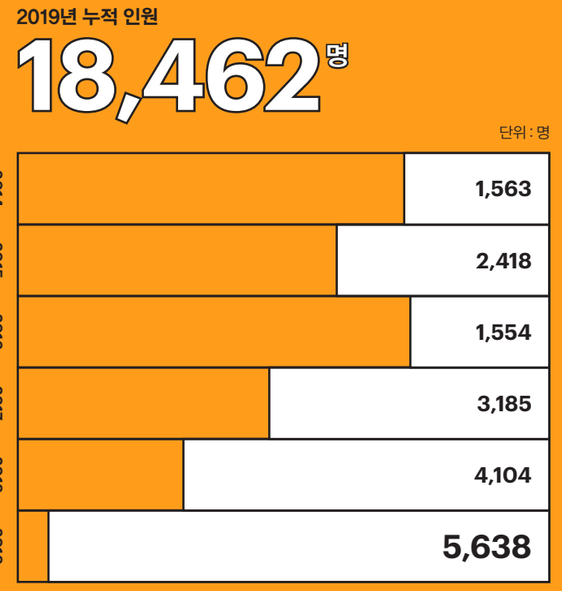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路(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다양한 예술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기업, 기관 등 사회적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합니다. 또한 예술적 기획·협업구조 모델을 만들어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접목되어 문화, 산업, 경제로 예술인의 가치가 확대되도록 합니다. 2019년에는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등 총 1,001명의 예술인이 참여했습니다.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 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시간제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2016년부터 공연예술뿐 아니라 전 분야의 예술인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9년 기준 18,462명의 예술인 자녀가 이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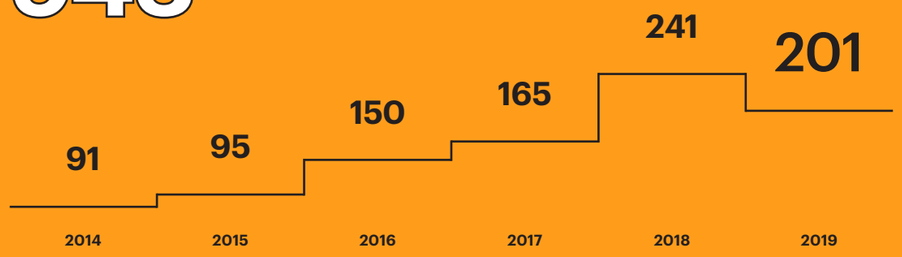
예술인 신문고

예술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불공정행위 누적 신고 건수는 943건이며, 상담 진행 누적건수는 총 1,448건입니다.

2019년 예술인신문고 누적 건수

943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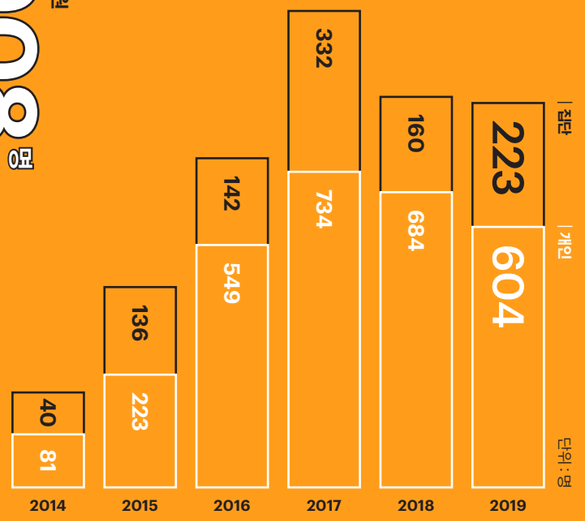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예술인의 스트레스와 고충해소를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되어 2019년까지 137개 상담기관에서 3,908명의 예술인이 심리상담을 통하여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누적 인원

3,9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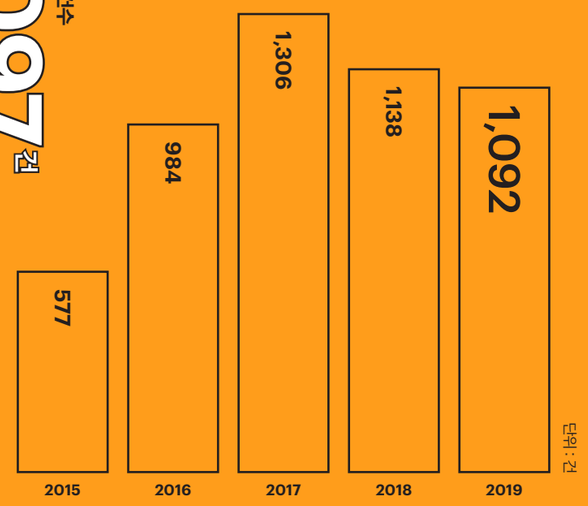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를 개선합니다. 또한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나갑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97건의 사회보험료를 예술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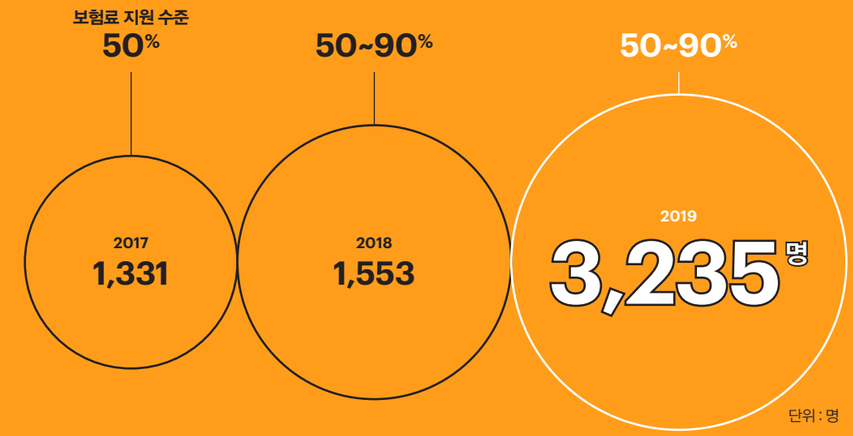
2019년 누적 건수

5,097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보수목적의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 누구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50~90%를 지원합니다. 2019년까지 산재보험 누적 가입자는 3,235명에 달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개인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예술계 내의 성폭력 문제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위기상황 대처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여 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71건의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55회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여 1,750명의 예술인 및 예비 예술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 신고접수 누적 현황

71건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누적 인원

1,7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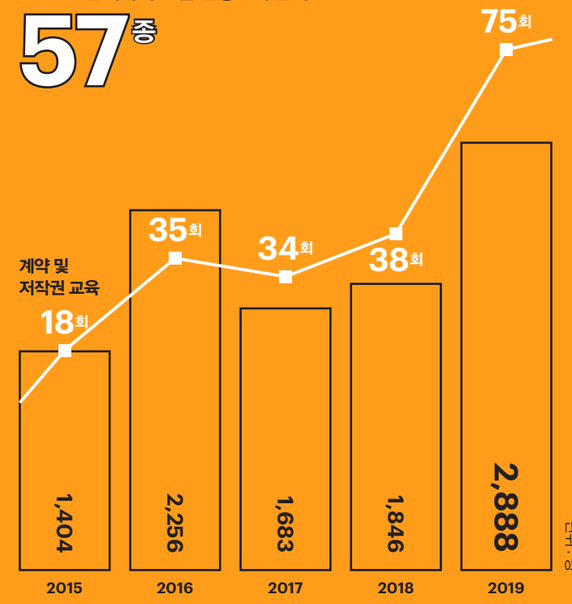
성폭력피해 지원 현황(피해자 요구)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계에 진입할 예비 예술인이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업 및 예비 예술인 10,077명을 대상으로 계약 및 저작권, 권익보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 9개 분야

5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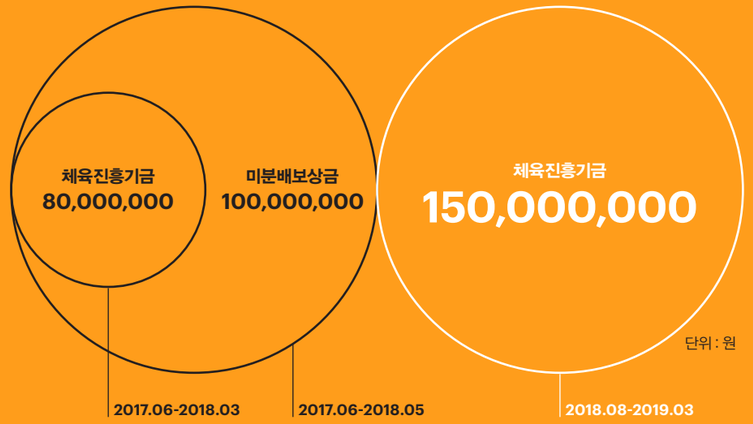
예술인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의 복귀와 지속을 도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증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 총 2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누적 인원

225명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산 현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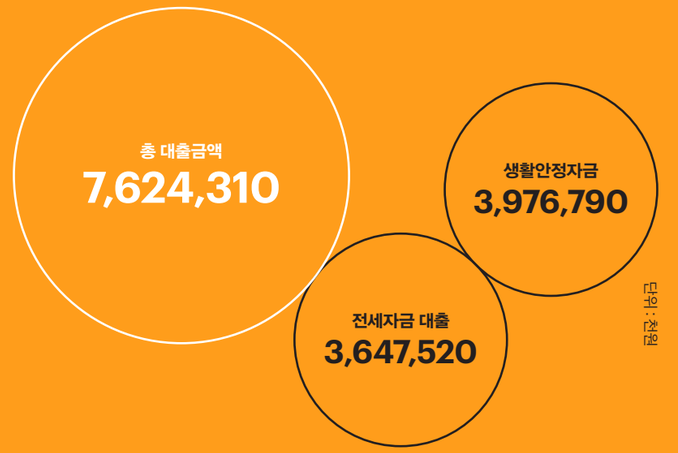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 1,440건, 전세자금 대출 5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전세자금 대출 현황

57건

2019년 생활안정자금 대출현황

1,440건



2019 돌아보는 예술인 복지사업

Business Result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위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예술 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를 점차 확대해 나갔던 한해였습니다. 예술인의 눈과 입이 되어 그들의 삶에 보다 한걸음 가까워지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던 재단의 의미 있는 행보를 되돌아봅니다.

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예술'이 정책과 제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의 존엄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예술인 및 현장전문가, 재단,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 예술인복지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이사진을 비롯해 현장전문가 및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인복지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예술인복지위원장으로 김영철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술인복지위원회 내 '정책현장소통', '공정예술생태', '예술인생활안정', '사회보험확대' 등 4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예술인 복지 의제에 대한 논의 및 조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술인복지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일시	장소	회의명	회의내용
예술인 복지 위원회	2019. 8. 26	재단 1층 회의실	제1차 예술인복지위원회 회의	예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예술인복지위원회 추진 경과 보고
	2019. 12. 4	재단 1층 회의실	제2차 예술인복지위원회 회의	예술인복지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및 〈2019 예술인복지포럼〉 개최계획 보고 및 논의 등
	2019. 12. 19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집담회 〈함께이야기〉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예술인복지위원회 향후 활동 등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
공정예술 생태 소위	2019. 8. 26	재단 4층 회의실	제1차 공정예술생태 소위원회 회의	공정예술생태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사업현황 보고, 추진일정 협의
	2019. 9. 9	재단 1층 회의실	제2차 공정예술생태 소위원회 회의	예술계 불공정사례 공유 및 공정예술생태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 등
	2019. 11. 14	대학로 좋은 이웃카페	공정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공정예술생태 소위원회 소개 및 활동계획,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재단 권고 내용 공유, 질의응답
사회보험 확대 소위	2019. 8. 26	재단 2층 회의실	제1차 사회보험확대 소위원회 회의	사회보험확대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사업현황 보고, 향후 일정 논의
	2019. 9. 23	재단 2층 회의실	제2차 사회보험확대 소위원회 회의	사회보험확대 소위원회 운영방향 협의 및 사업 현안 보고
	2019. 10. 14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제3차 사회보험확대 소위원회 회의	사회보험확대 예술현장 집담회 개최 계획
	2019. 10. 28	재단 1층 회의실	사회보험확대 소위원회 집담회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계 의견수렴
예술인 생활안정 소위	2019. 8. 26	재단 소회의실	제1차 예술인생활안정 소위원회 회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사업현황 보고, 재단 직원 처우 개선 필요성 논의 등
	2019. 10. 30	재단 1층 회의실	제2차 예술인생활안정 소위원회 회의	예술인생활안정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재단 주요사업 개선 및 정책 협의
정책 현장 소통 소위	2019. 8. 26	재단 1층 회의실	제1차 정책현장소통 소위원회 회의	정책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사업현황 보고, 추진일정 협의 등
	2019. 10. 4	재단 1층 회의실	제2차 정책현장소통 소위원회 회의	예술활동증명 운영제도 개선, 예술인패스 활성화 방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보고 및 개선관련 자문

예술인 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정책현장소통	당연직	황준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철	예술인복지위원장 / 前 G1 대표이사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위촉	윤중강	평론가
		홍보라	갤러리팩토리 디렉터
공정예술생태	당연직	이은봉	대전문학관 관장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조교수
	위촉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
		김희경	전국여성노조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예술인 생활안정	당연직	홍경한	미술평론가, 대림문화재단 사외이사
		정인석	前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위촉	김희영	서울문화재단 시민청팀 팀장
		서정임	보스토크 편집 동인
		하신아	작가
사회보험 확대	당연직	김인희	前발레STP조합 이사장
		이동기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위촉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사진작가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기타	위촉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소통위원장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부장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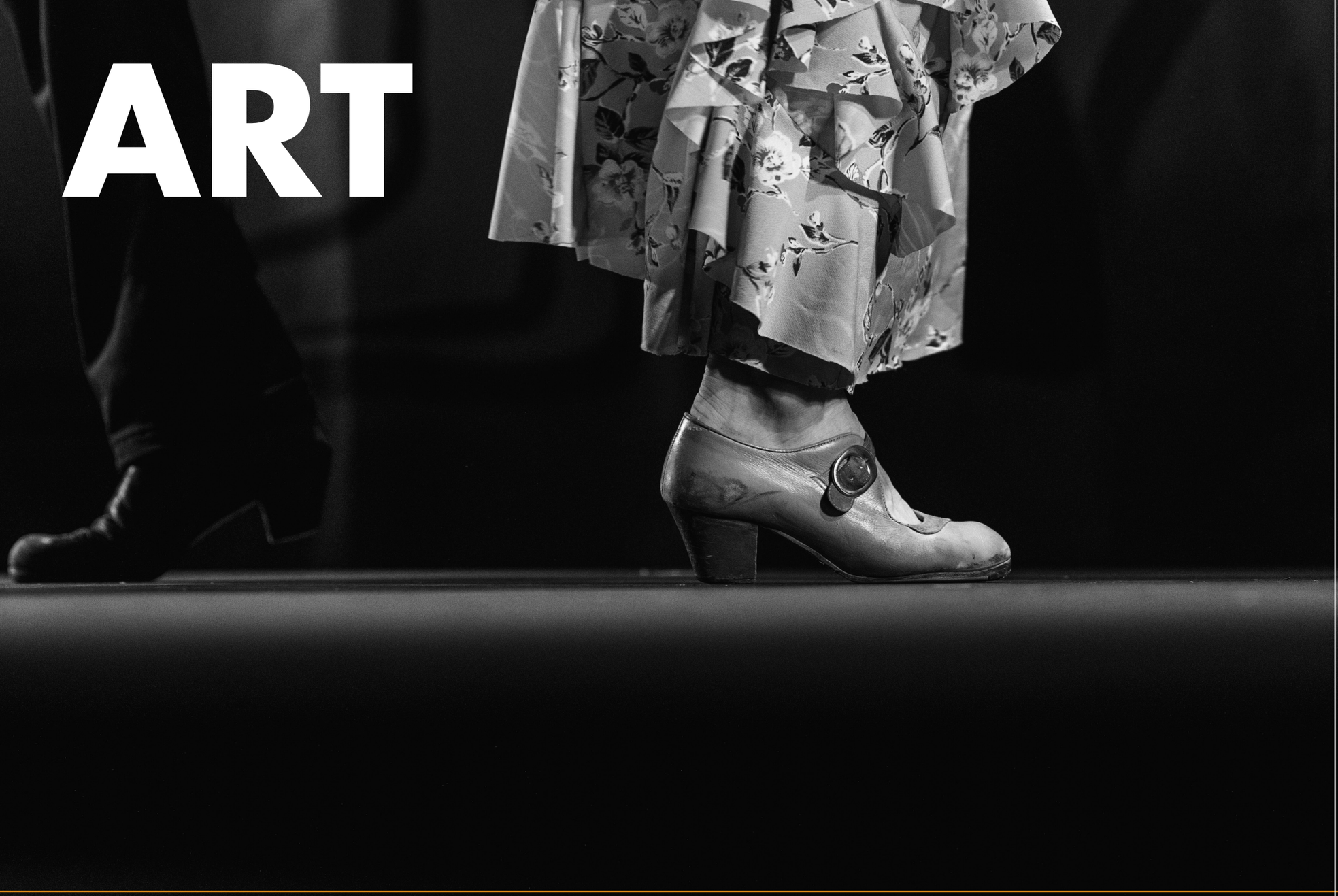
성명	소속 및 직위	구분
김윤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역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임진아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장	
김우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예술인복지센터장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기초
김성수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강희신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원 사무총장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협의체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재단
김영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예술인복지위원장	
이은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예술인복지위원회 공정예술생태소위 위원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기반의 예술인 복지 지원 증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2019년 11월 18일 발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김윤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역별 예술인복지 정책 및 사업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실행방안,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술인 사회보장시스템 및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구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이로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시, 예술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줄었습니다. 2020년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부터 반영됩니다. (2020년 3월 예정)
또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마련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융권(은행)과 연계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홈페이지(artloan.or.kr)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ART

ISI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예술인 역량강화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불공정관행 개선

예술인 신문고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Stabilization of Creation 1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입이 없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재단 대표사업입니다.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창작디딤돌)',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예술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다 많은 예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북돋우며 창작안전망을 구축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총 21,538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척박한 땅에서 창작의 열정을 이어 온 원로 예술인 발굴에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평생 예술에 헌신해 온 원로 예술인들을 제대로 대우한 뜻깊은 사업입니다. 예술활동 지속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창작활동의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에게 예술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드렸습니다. 지원금도 2015년 1인 200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1인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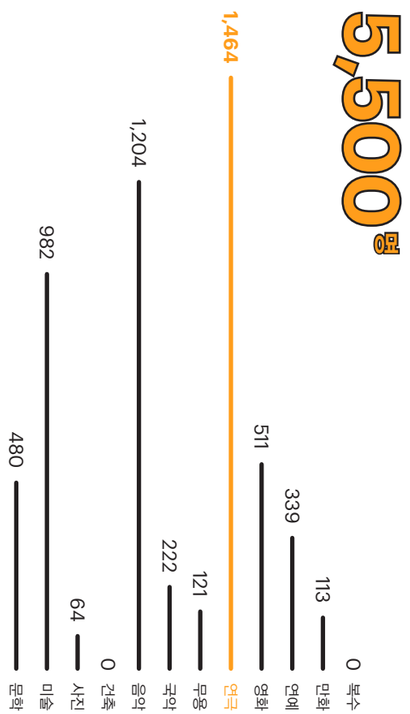
5,500명
2019년 창작준비금 수혜 인원

245명
2019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 인원

3,000,000원
1인당 지원금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예술활동을 준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 분야별 창작준비금 수혜 현황



2019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소득** :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50%(신청인이 피부양자)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 실적** : 2016년부터 2019년 신청 이전까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 예술인(1건)
- **원로 예술인**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 실적 증빙 가능 예술인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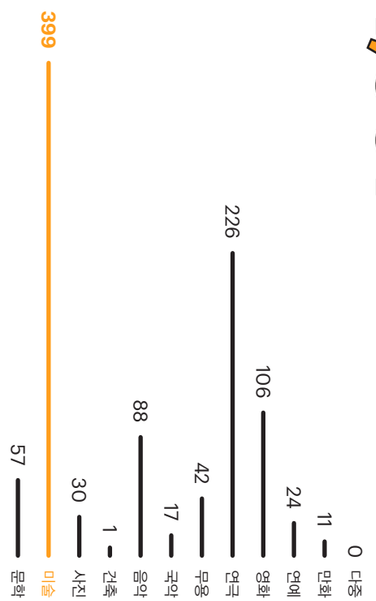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예술인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새로운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개인의 예술적 역량을 통해 사회(기업·기관·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고, 재단은 예술협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의 활동비 지원 및 교육,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2019년 1,001명의 예술인과 207개 기업·기관·지역이 사업에 참여하여 예술협업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2019년 초에 재단에서 진행한 〈예술인 지원사업 애칭 공모전〉을 통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애칭을 "예술路(로)"사업으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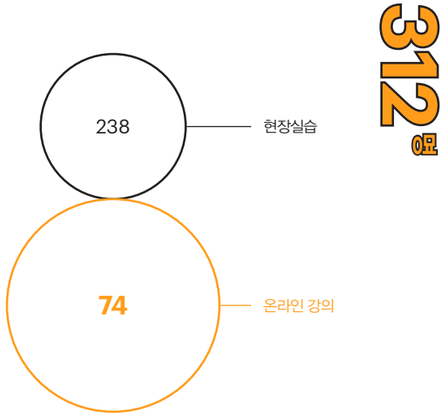
2019년 분야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수혜자 현황



예술인 역량강화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사회영역(기업·기관·지역)에 확장할 수 있는 예술활동으로 기업·기관의 구조 및 생리파악과 학습공동체 모델을 통한 실습으로 예술인의 현장 적응력 및 직업역량 향상을 도모합니다. 예술적 개입, 문화마케팅, 공동체성, 공공성 등 지식공유를 위한 온라인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개 역할로서의 전문성 향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38명의 온라인 수강생과 74명의 현장실습 참여자가 함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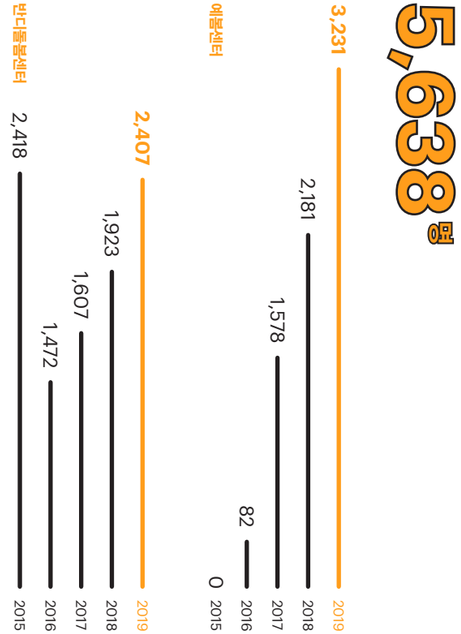
2019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수강인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2014년 한국연극인복지재단(반디돌봄센터)에 위탁하여 운영을 시작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은 2016년 예봄센터(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 추가 개소, 2018년 반디돌봄센터(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1층) 이전 과정을 통해 2019년 안정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 1,563명에 불과했던 이용인원 숫자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총 5,63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녀돌봄 지원사업 이용자 수



1,001명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인원

312명
2019 예술인 역량강화 수강인원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 사회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인 스스로의 예술적 개입으로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합니다.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3

불공정관행 개선

'불공정관행 개선'은 예술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예술인의 심리적인 고충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은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창작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529 건
2019년
법률상담 건수

201 건
2019년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
신문고 접수 건수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구제와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을 구축해 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사례비 미지급, 불공정 계약 등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201건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창구 상설 운영을 통해 529건의 법률상담(온라인, 전화, 대면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술인 신문고 지원절차

사전 상담 신고접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및 전화, 온라인 신고 상담

↓

사실 조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실 관계 조사 후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문화예술 공정위원회 상정
: 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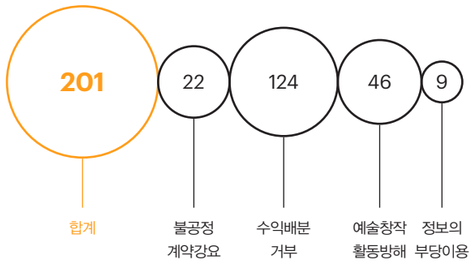
시정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 거쳐 시정명령

↓

소송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비용 지원 가능한 예술인

1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200만원)
2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
3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상인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원검토

2019년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신문고 접수 건수)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은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회 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단은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계약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업)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와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과 연계한 '예비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39회의 강의를 진행하여 1,18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36회의 찾아가는 특강을 통해 1,706명의 예비예술인이 표준계약서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5차시로 구성된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888 명
2019년 권익보호
교육 수강 인원

75 회
2019년 권익보호
교육 건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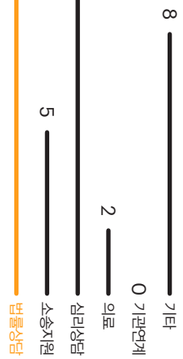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개인 심리상담(최대12회) 비용을 지원하고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으로 2019년 32개 기관이 운영되었으며, 총 827명의 예술인이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개인 심리상담을 종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그룹 집단상담을 운영하여 예술인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인 맞춤형 심리상담 모델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성폭력피해 예술인의 위기상황 대처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인식 제고를 통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총 47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1,49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예술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17명의 신규강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연구〉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대상 성평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예술계 내 자생적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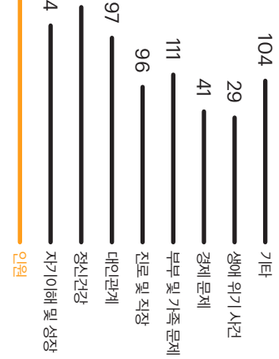
2019년 성폭력피해 상담 건수



2019년 예술인 심리상담 유형별 현황

604건

2019년 개인 심리상담 건수



223건

2019년 집단 심리상담 건수

2019년 심리상담 지정기관 명단

- 수도권

그랑조행복찾기심리상담센터
happycenter7.com
서울 서초구 잠원로 8길 25 래미안 팰리스 상가 4층
조현섭 | 010-6335-0391

다움심리상담센터
www.daumcc.com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대정프라자 602호
최문희 | 02-2672-1377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www.mesc.co.kr
서울 중구 퇴계로 32길 22, 1층
조성민 | 02-821-5953

마음의숲심리상담센터
www.mindforest24.com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대림아크로텔 2510호
박준영 | 02-2187-7499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서울)
www.semiraemind.com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46길 26 태창빌딩 3층
손명자 | 02-2295-5574

새봄심리상담연구소
newspring2017.com
서울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1006호
신영주 | 010-3565-7294

세인임상심리연구소
www.seinpsy.com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현대레이크빌 306호
이기련 | 02-6287-1275

심리상담연구소 함께
blog.naver.com/with_urlife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408호
윤영 박희경 | 02-2104-6833

이수심리상담센터
www.esupsy.co.kr
서울 동작구 사당로 268(사당동 1001–33) 2층
전진수 | 02-523-5283

이화심리상담센터
www.ewhachild.co.kr
서울 도봉구 창동 331–2 중앙빌딩 4층 402호
전현민 | 02-999-5232

임선영 심리상담연구소
www.limcounseling.com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2907호
임선영 | 02–6671–9090

한국상담임상심리센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3
비즈웰 종로 오피스텔 517호
이혜정 | 02-765-9700

경인심리건강센터
cbpsy.cafe24.com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52 네이버시티빌딩 201–1호
이봉건 | 032-321-2841

과천임상심리연구소
encourageyou.modoo.at
경기 과천시 중앙로 137, 4층 404호
윤수연 | 02-3418-0502

로뎀심리학습상담센터
rodemplc.modoo.at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514,515호
오현경 | 031-904-4569

세움심리상담센터
seummind.modoo.at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87번길 43–33, 301호
강은영 | 031-202-3812

심리상담센터 폭신폭신
pogsinpogsin.modoo.at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6 서현프라자 506호
조혜현 | 031-915-1456

심리클리닉 아이진
www.izin.co.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 삼라마이다스빌 505호
김진아 | 010-4667-2327

이든샘가족아동청소년상담소
www.안양심리상담.kr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평촌아크로타워 A동 1211호
손혜련 이소연 | 031-478-9958

파크심리상담센터
blog.naver.com/hbs828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중앙노블레스 6층
박상미 유미 | 031-405-8255

- 강원권

지우심리상담센터
www.wisefriend.co.kr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0 노빌리티타워 301호
성태훈 | 033-744-1579

심리상담센터 아낌
강원 춘천시 거두택지길 8, 2층
신정원 | 033-263-1155

- 충청권

손애리심리연구소
대전 서구 둔산로 133 현대아이텔 418호
손애리 | 010-4174-0060

학습&마음심리상담센터
학습과마음.kr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길 3, 202호
이철희 | 041-558-3837

휴심리상담소
cafe.naver.com/sooknam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0번길 72, 203호
고숙남 | 043-288-7057

- 경상권

강박사심리센터
www.강박사심리센터.com
부산 수영구 연수로 332–1 대한빌딩 4층 501호
강종구 | 051-703-2870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
www.smphc.org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306호
최정민 | 053-657-6571

참마음심리상담센터
www.cmaum.com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151번길 16
문가인 | 054-276-9174

- 전라권

심리건강연구소
www.cnupsy.org
광주 동구 남문로 758, 2층
김석웅 | 062-512-0039

최영미마음상담센터
www.happychoi.or.kr
광주 북구 동문대로 111 이상클리닉빌딩 4층
최영미 | 062-263-7942

온다라심리교육상담실
www.councenter.com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영진빌딩 5층 501호
강희양 | 063-273-5496

- 제주권

내마음의펭귄 심리상담센터
www.pgofmind.com
제주시 연화중길 12–9 301호
김현정 | 070-4213-8080

4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사회안전망 구축

728,000,000원

2015–2019년 의료비 지원 총 예산

1,682명

2019년 산재보험 신규가입자 수

1,092건

2019년 사회보험료 지원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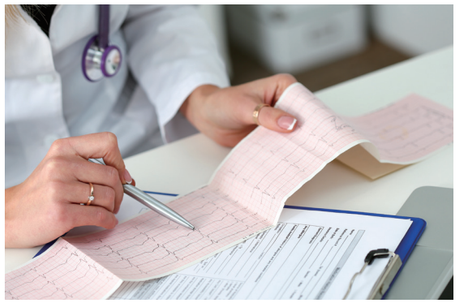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예술인이 안정된 제도망 안에서 보다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해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직업 예술활동 중 재해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납부보험료를 또한, 보험료 전액을 50~90% 환급 지원하여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1,682명의 신규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3,235명의 예술인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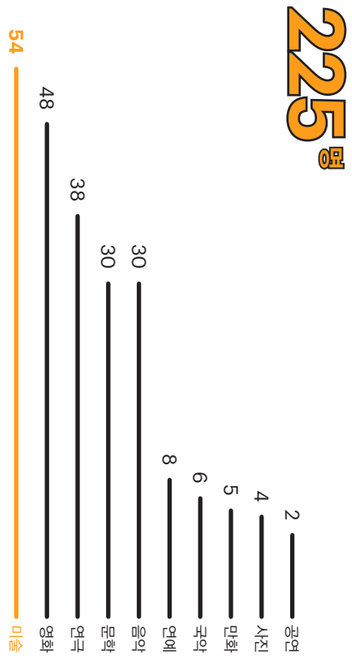
사회보험 제도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표준계약 체결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확산해왔습니다. 표준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예술인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2013년부터 7년 간 시행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과 과도한 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황으로 고통 받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7년 간 시행된 의료비 지원금 예산은 총 7억 2,8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총 225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거주 지역별 보유자산이 기준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분야별 의료비 지원현황 통계



예술인 산재보험 소개

예술인의 활동을 사회보험이 보호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해 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프리랜서 예술인도 보수를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 중 일어난 재해 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의 장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지원,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치료비부터 생활보조금, 장해, 유족급여까지 폭넓게 보장
- 민간보험은 보장의 한도를 정하지만, 산재보험은 부상 정도에 따라 지원 혜택이 변하고 치료비의 한도 제한이 적음
- 가입 연령과 직업, 과거 병력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음

보험료 지원

- 월 보험료 19,030원~61,100원(실연예술인 경우)
  보험료 기준보수액 1~12등급 중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선택 후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
-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일부 혜택(휴업급여 등)이 커짐
- 신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90% 지원 (본인부담금 1,910원, 1등급 6개월간) 예)가입 후 첫 6개월간 월 본인부담금 1,910원(90% 지원) 이후 9,510원(50% 지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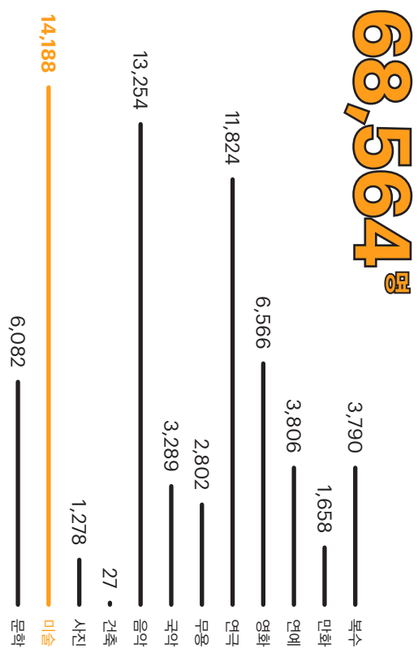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최근 일정기간 예술활동과 수입 내용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1개 예술 분야(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누적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68,56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누적현황



68,564명
2013–2019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66,018명
2019년 예술인패스
누적발급 인원

예술인패스

2016년 2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했던 '문화예술인패스사업'을 이관 받아 '예술인패스(Art Pass)' 카드 발급률을 높이고, 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예술인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기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kawf.kr), 모바일페이지(first.kawfartist.kr) 일원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kawf.kr:9090) 통합 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술인패스 누적 발급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9년 12월 기준,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는 총 66,018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예술인패스 접수기간 · 방법

- 신청 → 연중 상시
- 발급 → 월 2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예술인패스 홈페이지 artpass.kawf.kr:9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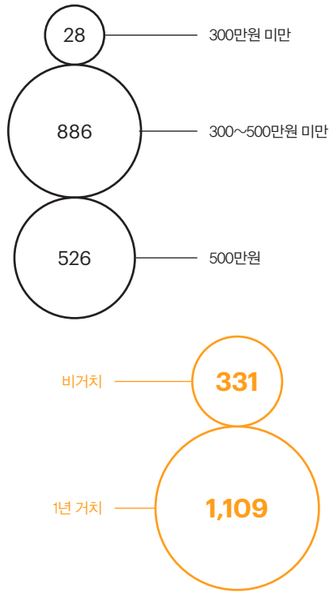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은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소득이 불안정해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술인의 생활기반 마련과 창작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대출'사업을 시작하였고, 11월 18일에는 전세자금 대출(최고 8천만원 한도)을 추가 시행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금융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440명에 달합니다. 신청 용도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학자금, 결혼비용, 긴급 생활자금 등이며, 대출금을 지급받는 예술인의 89.7%가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 역시 연 2.2%로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예술인의 주거안정 및 창작공간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1월에 신청을 받아 2020년 2월까지 57명의 예술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7%로 생활안정자금 대출보다 낮으며 임대차 계약은 동일조건을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2019년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금액 및 거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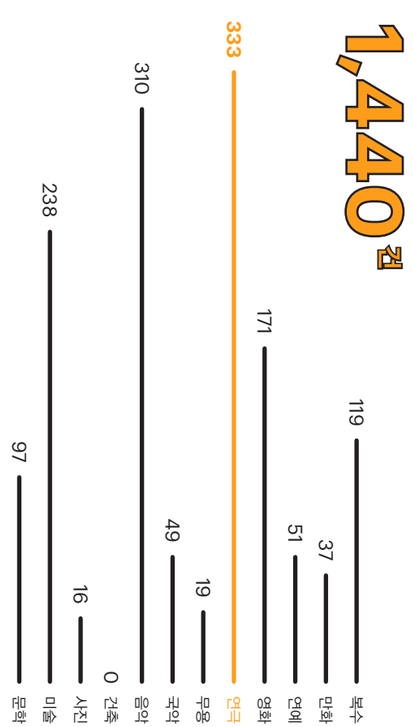
1,497건

2019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대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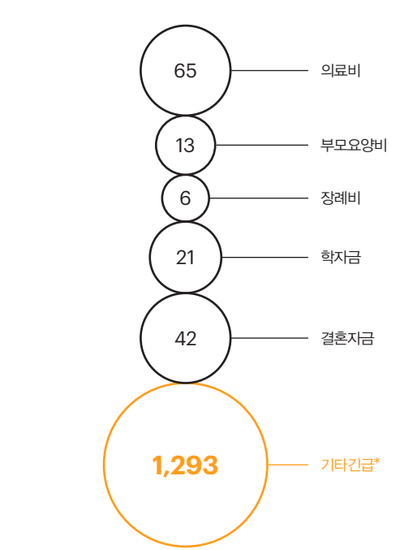
7,624,310,183원

2019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대출금액

2019년 분야별 생활안정자금 대출 건수



2019년 분야별 생활안정자금 유형별 대출 현황



※ 기타 긴급 유형

- 양육비, 공과금 체납, 통신비, 교통비 등 긴급 생활비
- 이사비, 임대료 등 주거 생활비
- 작품활동 (직업활동) 감소, 임금 체불로 인한 수입 감소
-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한 긴급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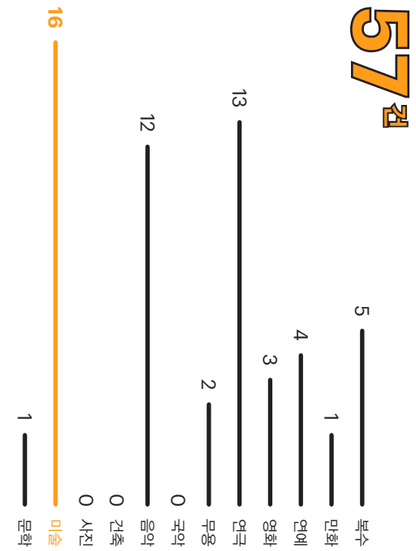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관리위원회 및 융자운영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9년 한해 동안 예술인 및 예술협·단체를 대상으로 총 12회 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총 14차 회의(~'20. 02. 14)까지 진행된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하여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승인자의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하였고, 총 7차 회의(~'20. 02. 25)까지 진행 된 융자관리위원회에서 사업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등 사업의 내용을 보완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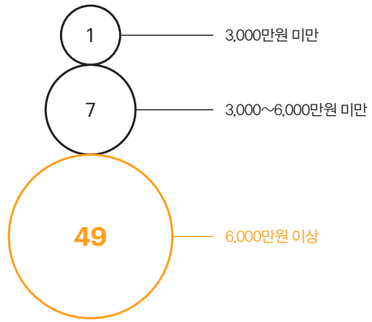
융자관리위원회 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강형철	숭의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강은정	동부그룹 상무
김광중	예술노동연구소 소장, 예술마당 시우터 단원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김한내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동학림	호서대학교 정보경영학과 교수
방지영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성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한국금융복지연구원 전문위원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이상훈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이청산	세연정보기술 부산지사장
임재형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황진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확산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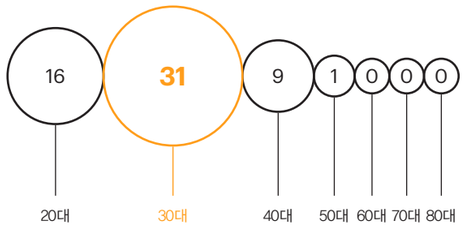
2019년 분야별 전세자금 대출 건수



2019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금액



2019년 연령별 전세자금 대출 건수



예술은 맘껏, 복지는 한껏!

2019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산하 '경남예술인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예술은 맘껏 펼치고 복지는 한껏 누리고'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김우태 위원을 만났다.

김우태 예술인복지 지역협력 위원회 위원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개소

예술인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 경남 예술인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예술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차근히 절차를 밟아 2019년 7월,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1만 5천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 약 2,900명이었던 등록 예술인의 수가 700명가량 증가한 3,600여 명(2019년 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업 참여를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경남 예술인복지시대의 문을 열었으니 지역 예술인들에게 센터의 존재와 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법으로 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19년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경남예술인복지센터는 크게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청년예술인파견사업, 창작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예술인역량강화사업, 의료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100명의 예술인에게 각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했습니다. 청년예술인 파견사업을 통해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10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공공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예술인 창작자금대출 지원사업은 공간 임대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신용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술인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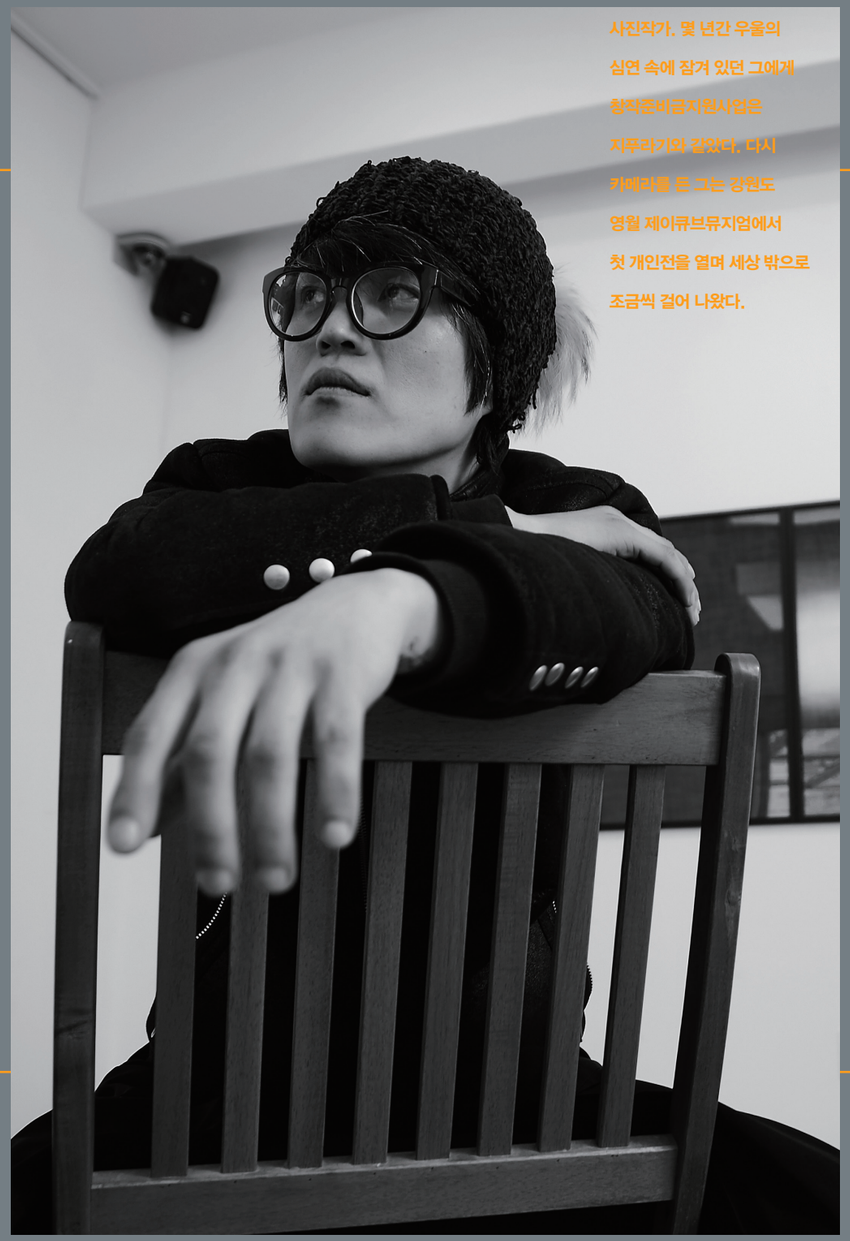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은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협치 구조체계가 다져지게끔 역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4대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위중한 병에 걸려 예술활동이 어려운 예술인을 발굴해 지원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넓게 해석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여러 검토 끝에 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되어 2020년부터 대상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전문성을 갖춘 지역 예술인들의 사업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사업을 지역의 문화재단, 예술인복지센터 등에 이관하는 방안도 개진했습니다

2020년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일자리정책과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신중년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업명으로 응모, 총 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예술로 도시재생'으로 청년예술인 파견사업과 같은 형태입니다. 2020년, 선정된 22명의 신중년 예술인들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어 예술과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물색하고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의 폭과 길을 넓히게 되어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직원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

예술인들은 지극히 사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공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예술행위나 작품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과 문화 재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도 예술인들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예술인들께서는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보다 법적으로 보장된 예술인의 '권리'를 누린다 생각하시고 센터를 편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경남 예술인들이 폭넓은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예술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자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경남예술인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하는 김상덕
사진작가. 몇 년간 우울의
심연 속에 잠겨 있던 그에게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지푸라기와 같았다. 다시
카메라를 든 그는 강원도
영월 제이큐브뮤지엄에서
첫 개인전을 열며 세상 밖으로
조금씩 걸어 나왔다.

다시 카메라를 들고 세상 밖으로

창작준비금으로 다시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다

김상덕 사진작가

자기소개

저는 매순간 세상의 시작과 끝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진에 담는 사진가입니다. 내 속의 누군가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산으로, 들로 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풍경이 내게 말을 건 것인지, 내가 말을 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풍경이 진실되게 '내 마음 같다'고 느끼는 순간 셔터를 눌렀습니다. 30대 초반, 사진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김중만 선생님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고, 10여년 간 활동하다 2018년 1월, 잠시 고향인 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땐 사진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고향

2015년, 하나뿐인 동생이 스스로 별이 되었습니다. 충격과 상실감, 미안함에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잊히겠지 했는데 해가 갈수록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없더군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요. 주변의 권유로 고향으로 내려와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나날이었고,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2018년에 찍은 사진이라곤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카메라가 옆에 있어도 도저히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하루는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시 작업을 시작해보자'라는 의욕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문을 두드리는 타입이에요. 당시 다니던 개척교회 목사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었죠. 목사님께서 예술인 대상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한다고 지원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간 활동했던 서류를 모아서 제출했는데 운 좋게 선정되었습니다. 또, 제이큐브뮤지엄 장우순 관장님을 소개해주셔서 기획초대전이자 제 첫 개인전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창작준비금의 의미

창작준비금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덕에 기획초대전까지 열게 되었고, 오랫동안 꺼내놓지 않았던 제 이야기들을 관객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받았던 물질적, 심리적 혜택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른 예술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창작준비금은 든든한 후원자였고, 다시 희망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 다른 기부

창작준비금과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김중만 선생님의 프로젝트 'Eyes of Vega'를 통해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안수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시 판매액의 50%를 개안수술비로 기부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제이큐브뮤지엄에서의 기획초대전을 시작으로 그간 모아둔 제 '원고'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사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게는 사진이 곧 제가 쓴 글이거든요. 창작준비금을 통해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듯 남은 원고들도 세상 밖으로 꺼내 놓으려 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열린 기분이에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을 통해 용기 낼 수 있었고, 기획초대전을 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명감도 생겼는데요.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제 곁에 묵묵히 있어 주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고개를 드는 것조차 염치없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 일어설 용기를 얻은 만큼, 마음에 와닿는 풍경들을 카메라에 진실 되게, 진심을 다해 담아낼 생각입니다. 감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제 작품을 보고 힘든 순간을 견디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창조적 쉼, 건설적 회복을 위한 창작놀이

리커버리예술단

리커버리 예술근육위원회

리커버리예술단

리커버리예술단은 서영주, 김지애, 염지희,이병기, 황경현 다섯 명의 예술가가 모여 2019년 창단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기획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지만, 사업 참여를 통해 함께한 기관 나들목바하밥집의 청년들은 물론 저희도 리커버리 했습니다. 함께한 나들목바하밥집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 나누면서 기관의 목적성에 맞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리커버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리커버리예술단은 오픈쌀롱을 열었어요. 예술가들은 물론 기관 담당자, 함께하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리커버리에 대한 생각의 소통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통해 리커버리라는 막연함이 구체화되고, 다섯 명의 예술가들이 시너지 낼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작놀이 프로그램 '영화배우와 영화감독이 함께하는 스마트폰으로 영화만들기', '싱어송라이터와 시각예술가가 함께하는 음유시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투어링 프로그램 식도락', '움직임놀이, 다뤄지지 않은 몸짓' 그리고 기획사업 결과 보고 전 '오아시스카페'까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리커버리'에 온전히 집중하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나들목바하밥집의 생각

예술가들과 모여 리커버리예술단의 취지를 이야기했을 때 저희와 딱 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기관에서도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거든요. 리커버리예술단과 함께하면서 저희 기관의 청년들이 용기를 얻고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워크숍을 진행하면 꼭 결과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어색하더니 어느 순간 모두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변화였죠.

예술인들의 생각

서영주 — 지난해 기획사업이 신설되면서 '우리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을 풀어낼까를 고민하다 치유와 회복의 되찾음, 리커버리로 정리가 되었고,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리커버리센터도 시너지 내는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호흡이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지애 — 리커버리예술단 안에서 제 역할을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기존 방식의 음악을 답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염지희 작가와 콜라보한 음유시인 워크숍을 통해 저도 리커버리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염지희 — 이번 기획사업을 통해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장르와의 협업이 매우 재미있었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경현 — 제가 경험한 예술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술전시라든지, 공원과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 등을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리커버리예술단은 창조적인 쉼, 건설적인 회복, 예술작업의 순환 등을 최우선 가치로 활동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시즌2를 이어나갈 계획으로 리커버리밴드, 모금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예술인들의 연대를 통한 '리커버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리커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무한 신뢰의 협업으로 탄생한 리커버리예술단을 만났다. 그들은 예술활동 그 이상의 성찰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리커버리'는 물론 자신들의 리커버리도 하고 있었다.

심리상담으로 치유하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거래’가 준 상처

박정민 연극배우

문예창작을 전공한 박정민 배우는 졸업을 앞둔 8년 전, 연극배우를 해야겠다고 갑자기 목적지를 바꿨다. 우연히 접한 연기의 세계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작환경은 열악했고, 제대로 된 대우는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그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심리상담을 신청한 이유였다.

자기소개

전공 수업 중 희곡론이 있었는데, 동기들과 시나리오를 창작하고 영화를 촬영해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를 찍으며 연기의 맛을 알아버렸죠. 제대 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다 연기할 때의 짜릿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12년 졸업을 앞두고 대학로에 있는 어린이극단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밀양문화재단 ‘청년 K-STAR 밀양연극아카데미’에서 청년예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쏜톤 와일더 작 〈우리 읍내〉의 무대감독 역, 이대영 작 〈박무근 일가〉의 박무근 역 등 굵직한 역할을 맡으며 호흡이 긴 정극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대학원) 연기과에 진학, 아동청소년극을 전공하면서 향후 양질의 아동청소년극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인연

연기를 시작할 때 10년을 했는데도 배우로서 가능성이 없다면 그만 두자라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각오가 무색할 만큼 3년을 버티지 못했죠. 당시 극단 대표와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극단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연극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네게 연기를, 연극을 가르쳐 준다’는 대표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열정 페이가 곧 수업료라는 마음이었죠. 실제로 당시 무대연기 매커니즘에 대해 많이 배운 것이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처한 상황들이 부조리하게 느껴졌어요. 극단을 나온 후에도 상실감 ,실망감,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돈이나 벌자’고 취업을 생각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낙담하고 있던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보게 됐고, 인연이 닿아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단에서 청년 인턴으로 예술행정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죠.

전문가 상담

앞서 말한 어린이극단 대표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2014년 3월에 극단을 나왔고,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그때의 일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그 시기에 갑자기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노무사님과 과거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 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하진 못했지만 전문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 받는 것만으로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그 과정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에 맞서 내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죠.

심리상담의 도움 그리고 바라는 점

심리상담을 통해 사람으로 인해 다친 마음이 치유되는 걸 깊게 느꼈는데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그간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의욕마저 상실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성격검사를 통해 나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네 잘못이 아니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좋은 지원 사업들이 널리 알려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가 닿기를 바라고요. 또 재단에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겠지만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 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의지하고 문을 두드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술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통계자료

Statistics

연령별

단위 : 명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2017	3	1,214	1,536	619	303	156	149	31	3	**4,014**
2018	-	899	1,925	840	422	214	163	33	5	**4,501**
2019	-	1,264	2,319	957	445	270	183	56	6	**5,500**

지역별

단위 : 명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7	2,073	200	87	152	55	81	22	8	890
2018	2,211	227	106	182	66	90	17	6	1,034
2019	2,738	256	109	217	95	122	55	12	1,188

연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7	45	39	60	87	39	55	96	25	**4,014**
2018	69	68	53	107	42	74	105	44	**4,501**
2019	84	53	80	138	60	75	152	66	**5,500**

분야별

단위 : 명

연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2017	301	748	54	-	846	144	91	1,151	441	146	92	-	**4,014**
2018	399	869	41	1	894	188	114	1,242	432	218	103	-	**4,501**
2019	480	982	64	-	1,204	222	121	1,464	511	339	113	-	**5,500**

연령별

단위 : 명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2017	-	121	579	244	50	5	1	**1,000**
2018	-	104	610	244	36	5	1	**1,000**
2019	-	100	606	252	38	5	-	**1,001**

지역별

단위 : 명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7	579	17	21	31	16	13	10	2	225
2018	615	11	18	44	8	13	13	1	209
2019	594	15	15	37	12	9	10	3	219

연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7	21	14	1	21	2	6	9	12	**1,000**
2018	16	13	1	16	2	3	7	10	**1,000**
2019	23	19	6	11	-	6	9	13	**1,001**

분야별

단위 : 명

연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다중	합계
2017	83	372	30	1	92	18	43	210	114	29	8	-	**1,000**
2018	58	383	24	1	84	16	51	240	105	28	10	-	**1,000**
2019	57	399	30	1	88	17	42	226	106	24	11	-	**1,001**

예술활동 현황

연령별

단위 : 명

연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2017	9,189	18,933	9,000	5,127	2,754	1,350	306	**46,659**
2018	10,544	22,903	11,246	6,705	3,778	1,791	450	**57,417**
2019	12,369	27,265	13,601	7,870	4,765	2,084	610	**68,564**

지역별

단위 : 명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7	21,406	2,994	1,139	1,920	742	901	581	82	11,146
2018	25,396	3,532	1,365	2,342	1,023	1,140	881	126	13,381
2019	30,000	4,040	1,601	2,825	1,282	1,372	1,014	184	16,110

연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7	705	499	500	971	528	543	1,696	306	**46,659**
2018	874	627	649	1,396	639	669	2,964	413	**57,417**
2019	1,096	731	837	1,723	742	819	3,641	547	**68,564**

분야별

단위 : 명

연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2017	3,991	10,063	832	11	8,194	2,134	2,084	9,057	4,774	2,433	849	2,237	**46,659**
2018	5,143	12,479	1,079	22	10,399	2,696	2,403	10,406	5,733	2,948	1,236	2,873	**57,417**
2019	6,082	14,188	1,278	27	13,254	3,289	2,802	11,824	6,566	3,806	1,658	3,790	**68,564**

예술인 권리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 접수 건수

단위 : 건

연도	불공정계약강요	수익배분 거부	예술창작활동 방해	정보의 부당이용	합계
2017	24	135	3	3	**165**
2018	67	145	23	6	**241**
2019	22	124	46	9	**201**

법률상담 건수

단위 : 건

연도	합계
2017	**258**
2018	**366**
2019	**529**

예술활동 분야별 상담 건수

단위 : 건

연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기타	합계
2017	15	87	2	-	19	-	-	50	13	38	34	-	**258**
2018	32	116	2	-	57	5	7	53	23	17	41	13	**366**
2019	60	147	9	-	57	4	5	75	23	29	64	56	**529**

예술활동 분야별 신고 건수

단위 : 건

연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기타	합계
2017	17	19	2	-	7	1	1	64	3	33	18	-	**165**
2018	10	26	2	-	28	-	1	84	2	29	59	-	**241**
2019	10	19	1	-	36	2	-	70	7	48	8	-	**201**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기간

2019.7~2020.2

전세자금대출 사업기간

2019.11~2020.2

연령별

단위 : 명

연도	사업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2019	생활안정자금	261	618	308	145	80	27	1	**1,440**
	전세자금	16	31	9	1	-	-	-	**57**
	합계	277	649	317	146	80	27	1	**1,497**

분야별

단위 : 명

연도	사업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2019	생활안정자금	97	238	16	-	310	49	19	333	171	51	37	119	**1,440**
	전세자금	1	16	-	-	12	-	2	13	3	4	1	5	**57**
	합계	98	254	16	-	322	49	21	346	174	55	38	124	**1,497**

지역별

단위 : 명

연도	사업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9	생활안정자금	742	47	21	66	20	35	10	5	320
	전세자금	30	2	-	2	1	3	-	-	13
	합계	772	49	21	68	21	38	10	5	333

연도	사업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9	생활안정자금	25	21	15	32	7	18	42	14	**1,440**
	전세자금	1	-	1	3	-	-	1	-	**57**
	합계	26	21	16	35	7	18	43	14	**1,497**

신청금액 및 거치기간(생활안정자금)

단위 : 명

연도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합계
2019	28	886	526	**1,440**

비거치	1년 거치	합계
331	1,109	**1,440**

직전년도 소득금액

단위 : 명

연도	사업구분	1,320만원 미만	1,320~1,680만원 미만	1,680~2,040만원 미만	2,040만원 이상	합계
2019	생활안정자금	1,335	54	38	13	**1,440**
2019	전세자금	51	2	2	2	**57**
2019	합계	1,386	56	40	15	**1,497**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상품별 문의 건수

단위 : 건

연도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합계
2019	10,913	1,650	**12,563**

생활안정자금(융자) 유형별 문의 현황

단위 : 건

연도	신청요건	서류작성	신청보완	진행일정	전산문의	기타	합계
2019	2,899	4,473	1,327	1,220	181	2,463	**12,563**

2019
주요 활동 뉴스

2019 News

1

2

1

2019.01.17

(주)워터웨이플러스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주)워터웨이플러스가 1월 17일(목), 지역 예술인 복지 증진 및 강(江) 문화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주)워터웨이플러스는 강 문화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문화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 예술인 정보 공유, 예술인의 강 문화관 전시·행사관 활용 적극 지원, 예술가치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 협조 및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2011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주)워터웨이플러스는 친수 환경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5개 강 문화관 운영관리 및 국내 최초 공공마리나 운영, 물길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한 경인 아라뱃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특히 강 문화관을 기반으로 강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발판이 되어 함께 협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

2019.02.18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월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민청 B2층에 위치한 태평홀에서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번째 진행되는 이번 사업설명회는 예술인과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예술인 복지사업 일반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지원대상자가 1,000명 늘어난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1,000명이 늘어난 총 5,500명에게 각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배점제'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받는다. 설명회가 개최되는 태평홀 옆 시민플라자에서는 2월 15일(금)부터 21일(목)까지 '2018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전시회–〈波牽展(파견전)〉'이 열린다. 올 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8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협업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4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85개의 영상, 음원, 회화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된다.

3

2019.03.2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홍보 캠페인 〈예술로 사는 세상〉 전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9년 6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홍보하는 〈예술로 사는 세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2019 업무계획'에서 비중 있게 발표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 및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다. 일반 서민정책금융제도는 대출용도가 창업자금에 한정되거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이 예술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현실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활자금에 필요한 소액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융자 상품은 소액생활자금 대출, 주택자금(창작 공간 포함) 대출, 예술작품 등 담보부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2020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4

2019.04.12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4월 12일(금),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등 협력, 예술인에게 실효성 있는 산재보험 보호방안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공단 직영병원 이용 시 예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예방 제공(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할인 혜택), 기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을 돕고,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4명의 예술인이 가입, 140명이 약 18억 원의 산재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서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에 있는 10개의 직영병원 및 재활전문센터를 통해 다차원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한 산재보험만의 특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 승인 전이라도 노동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지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조기 직업·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3

4

5

2019.05.08

세종시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문화재단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세종시 예술인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세종예술인(단체) 복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세종예술인(단체) 복지 및 지원사업 홍보 지원, 세종지역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예술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예술인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지원과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창작준비금·예술인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 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세종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6

2019.06.03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6월 3일(월), 만화가의 지위와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특히나 현재 1,393명(2019.5.28. 기준)인 만화 분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의 증가를 위해 홍보를 강화, 만화가들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만화 분야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예술인 복지사업의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

2019.06.14

표준계약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받은 영화 〈기생충〉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여러 면에서 화제다. 수상과 더불어 예술계의 눈길을 끈 것은 영화에 참여하는 전 스태프들과 주52시간 근로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실제 계약서에 의거해 촬영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영화 〈기생충〉에 참여한 스태프 35명과 제작사인 바른손이앤에이에게 총 1,15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스태프에게 총 560만원, 제작사에게 총 59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촬영 기간(2018년 2월~9월)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에 해당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나가기 위해 2014년부터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표준계약서는 한마디로 '견본계약서'이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계약 관련 내용을 정형화시켜, 누구나 쉽게 참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6

8

2019.06.2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4일(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6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www.artloan.kr)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KEB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02-3668-0238~9),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9

2019.08.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한국심리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8월 22일(목), (사)한국심리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한국심리학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예술인의 정신건강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학자의 역할 및 위상을 높인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19 제73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심리상담과 집단 심리상담,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재단에서 위촉한 전국 32개(19년 기준) 전문심리상담 기관에서 최대 12회까지 1:1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심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지원을 확대(14년 81명, 15년 223명, 16년 549명, 17년 734명, 18년 648명, 19년 8월 22일 기준 598명 예술인 지원)해 오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예술인들의 신청과 호응이 높아져 올해 개인 심리상담은 신청 3달 만에 조기 마감되었다. 개인 심리상담은 마감되었지만, 위기상담과 집단 심리상담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 02-3668-0200)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10

11

10

2019.09.03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가 9월 3일(화),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실효적 구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및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양 기관의 불공정 관련 프로그램 참여, 양 기관의 공익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인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신문고'로 신고 되는 사건 중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즉 체불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 가입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 상담센터(02-3668-020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11

2019.11.20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발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1월 18일(월),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재단은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지방자치 협·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김윤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임진아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장, 김우태 경남예술인복지센터장,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희신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원 사무총장, 김성수 달성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등 외부위원 9인을 위촉하였으며, 이 외에 재단 정희섭 상임이사, 김영철 이사, 이은봉 이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첫 회의에서 김윤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역별 예술인복지 정책 및 사업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앞으로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실행방안,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12

2019.12.06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국민연금공단이 12월 6일(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12

13

설립되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직업의 특성상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편입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연금제도이다. 현재 가입자는 2,200만명에 달한다.

13

2019.12.3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권경영 선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9년 12월 31일(화)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선언식'을 개최하고 인권경영을 선언했다. 이번 선언식에서 직원대표 2인의 인권선언문 낭독을 통해 전 임직원이 평등한 조직문화 구성 및 인권 존중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9년 한 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2020년도부터 보다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이번 인권경영선언식을 마련하였다. 이번 선언식에서는 인권경영의 개념 및 추진 필요성을 소개하고 인권경영선언문을 공표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가치 및 의미를 되새기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권경영선언문은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10대 운영원칙에 기반 하여 제정되었다. 그 내용으로 인권기준과 규범 존중, 개인적·사회적 조건에 대한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산업 안전의 보장, 정책수행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인권침해 구제방안 등 총 8개 항목이 담겨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전임직원이 하나 되어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언제나 예술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처럼,
예술인이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늘 함께하겠습니다.

20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0.2.24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정희섭
편집인 정철
기획 정책기획팀
편집 및 디자인 디자인 퍼플
인터뷰 사진 이도영